

조씨코아 복수의 씨앗



원작
번역·드라마트루그
각색·연출

기군상 紀君祥
오수경
고선웅

출연

도안고 ⑧ 장두이
정영 ⑧ 하성광
공손저구 ⑧ 임홍식
영공 ⑧ 이영석
조순 ⑧ 유순웅
재미명 외 ⑧ 조연호
정영의 처 ⑧ 이지현
도안고의 부사 외 ⑧ 성노진
서예 외 ⑧ 장재호
한결 ⑧ 호산
영천 ⑧ 강득중
조삭 ⑧ 김도완
신오 외 ⑧ 김명기
목자 ⑧ 전유경
공주 ⑧ 우정원
조씨고아 ⑧ 이형훈
콘트라베이스 연주 이경화

무대디자인 이태섭
조명디자인 류백희
의상디자인 이윤정
음악감독 김태규
분장디자인 이동민
소품디자인 김혜지
무술감독 한지빈
움직임지도 고재경
음향디자인 음창인

조연출 서정완
조연출보 노현동

무대디자인어시스턴트 박은혜
무대제작 (주)쇼앤아트 전개식
조명디자인어시스턴트 백하림
조명장비임차 Lighting Campus 하종기
의상제작 비라이트
의상디자인어시스턴트 이윤진
의상 동물그림 현승진 상민복지관, 공백움
분장팀 이수연 박경희 이유미
소품제작 연극공방 무 김동훈
소품팀 이희순
소품 동양화 구민정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신승호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류선영
의상제작지원 노경민
무대진행 신승훈 박광성 김선태 나혜민

의상진행 전새미 김혜란
조명크루 전요나 심새늘
주경 김동진 손정은
김종민 박경진

그래픽디자인 이재민 조형원 studio fnt
홍보사진 김성수
공연·연습사진 나승열
홍보·기록영상 (주)제이알미디어
영문자막 이재은

리허설북 에디터 김민정
리허설북 기록 최현지
리허설북 기획 지민주

홍보 최윤영 이정민
마케팅 정용성 한나래 정채영
광고 지역림
홍보물 제작 박미옥 김태은
교육 프로그램 손신형 최보미

티켓매니저 이현아
티켓 조기에 김보전 박연주 김보배
콜센터 슈퍼바이저 전성애
하우스매니저 정예지
하우스안내 강태원 구모은 김동완 김소정
김자연 민은지 박혜미 신다영
신민경 이수영 임슬기 정새롬

PD 김영래
AD 김현희

예술감독 김윤철
제작 (재)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The Orphan of Zhao

2015.
11.4
—
11.22



NAVER
푸른티켓

원작
기군상

번역
오수경

각색·연출
고선웅

출연
장두이 하성광
임홍식 이영석
유순웅 조연호
이지현 성노진
장재호 호산
강득중 김도완
김명기 전유경
우정원 이형훈

연주
이경화

평일
7:3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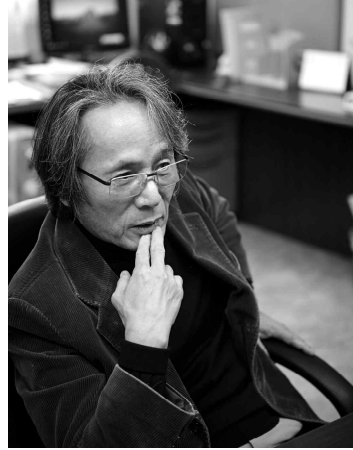
주말
3:00 PM

매주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명동예술극장

제작
국립극단

비극미와 희극미의 조화를 기대하며



김윤철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기군상 원작, 오수경 번역, 고선웅 각색·연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을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올립니다. 중국 고전 중 손꼽히는 명작으로 평가받는 원작을 소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희곡, 특히 중국 고전이 우리나라 관객들과 만났던 기억은 많지 않습니다. <조씨고아> 역시 우리나라의 춘향전과 같이 중국인 누구나 알고 있는 매우 대중적인 이야기이지만 국내에서 공연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고전은 그야말로 원석과 같아 앞으로 발굴, 소개할 여지가 무궁무진하여서 서사중심, 배우중심 연극을 표방하는 국립극단의 목표에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제목 그대로 '복수'를 주제로 한 공연입니다만, 선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비장미를 드러내는 이 연극이 아마도 여러분께 흥미로운 고민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연출을 맡은 고선웅은 이번 국립극단과의 첫 작업에서도 비극미와 희극미의 조화를 적절하게 이루어 내면서 그만의 독특한 신체연극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두이, 임홍식, 이영석 등 경험 많은 배우들과 젊은 배우들이 행복하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좋은 앙상블로 여러분을 환영해줄 것입니다.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화롭기만을

고선웅
각색·연출
극공작소 마방진 예술감독

주요작품

연극: 각색·연출 <홍도>,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리어외전>, <푸르른 날에>, <칼로막베스> 작·연출 <늘어가는 기술>, <들소의 달>, <강철왕>, <마리화나>, <락희맨쇼> 연출 <뜨거운 바다> 외
뮤지컬: 극본·연출 <아리랑>, 운색·가사 <윈스>, 극본 <남한산성>, 극본·가사·연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외

수상

- 2014 월간 『한국연극』 올해의 연극 베스트7, 이데일리 문화대상 최우수상 <홍도>
- 2014 차범석희곡상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2014 산동연극제 작품상, 연출상 <외톨이들>
- 2013 영화연극상
- 2012 대한민국연극대상 희곡상 <늘어가는 기술>
- 2011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월간 『한국연극』 올해의 연극 베스트7, 대한민국연극대상 작품상, 연출상 <푸르른 날에>
- 2010 동아연극상 작품상, 연출상 <칼로막베스>
- 2010 서울연극제 우수작품상 <들소의 달>
- 2008 한국공연예술프류시어협회 올해의 예술인상
- 2001 옥랑희곡상 <천적공존기>

처음 원대 잡극을 접했을 때 연극의 원형과 마주하는 충격을 받았습니 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과 관심거리가 동굴 벽화에 드러나듯 13세기의 연극도 그랬습니 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립하는데 주제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풀어내는 방식도 극적이고 볼거리가 좋았습니 다. 옛날 멜로드라마랄까요. 재미도 있고 놀이성도 풍부합니 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무대에서의 죽음을 간단하게 퇴장으로 처리한다는 겁니 다. 사실 우리는 편견이 있어서 장면의 끝에 죽음을 배치하고 암전을 한 후에 퇴장을 시키지요. 그런데 그냥 암전 없이 통쾌하게 갑니 다. 작품의 흐름



을 방해하지도 않습니 다. 기가 막히지요. 저는 그 재미에 빠졌습니 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습니 다. 『조씨고아』는 제가 읽었던 여러 희곡 중에서도 특히 대번에 읽혔고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작품목록이었습니 다. 그런 기회를 영광스럽게도 국립극단이 만들어주셨습니 다. 행복하게 작업했습니 다. 우리 연극이 가야하는 길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 다.

『조씨고아』는 복수를 다룹니 다. 제가 정한 주제는 “필요하다면 복수는 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후련해지는 것은 아니 다.” 입니 다. 정영의 입장에 서서 보니, 복수는 옳지 않 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권할 수도 없는 일입니 다. 복수는 끝이 안 납니 다. 끝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보복을 그만두어야만 합니 다. 그러자면 그만두는 쪽에서 반드시 후련하지만은 않을 것 이 다, 라는 예지가 있어야 합니 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영은 영공이 도안고 집안의 9족을 멸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 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 다. 참으로 애석하지요.

연습하는 내내 저는 n분의 1로서 많이많이 행복했습니 다. 함께한 배우와 스태프들의 성품이 어찌면 다들 그렇게 온화하고 자 애로울까요. 어르신들은 옛날이야기, 그 흔한 훈계도 한번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셨습니 다. 아랫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신들의 도리를 찾아서 다했습니 다. 연습실 분위기가 상하로 그야말로 좋았지요. 저는 그 좋았던 분위기 그대로 공연이 올라갈 거라 확신합니 다. 부디 좋게 봐주시고 좋은 작품이 다 생각되시면 주위에 선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인류가 벌이는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의지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끄트머리에 목자가 이야기 합니 다.

“우환을 만들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부디 평화롭기만을
금방이구나 인생은
부디 좋게만 사시다 가시기를”



우리, 좋게만 사시다 갑시다

- 고선웅 연출과의 인터뷰

김민정
작가/리허설북 에디터
인터뷰 진행, 정리

연출가 고선웅과 마주하면 밤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그 기대감은 대학로의 어느 밥집이나 동소문동 어느 술집에서 종종 성취되기도 했다. 동네 오빠 같은 그가 무대에서는 예민한 카리스마쟁이로 돌변할 것 같지만 막상은 그렇지 않다. 참 무르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주위에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 내가 본 고선웅이라는 사람은 그렇다. 연출로서는 또 어떤가. <락히맨쇼>의 발칙하고 엉뚱한 상상력, <칼로막베스>의 페이스스 가득한 역동성, <푸르른 날에>에서 보여준 신파와 비극의 넘나들, <리어외전>의 노년의 쓸쓸한 외침, <홍도>, <아리랑>으로 이어지는 시대극까지 그의 작품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고선웅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하게 하는, 관객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립극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의 선정 과정부터 연습 5주차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립극단과는 첫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예술감독이 작품을 선정하거나 피디들이 추천하거나 하는데, <조씨고아>는 연출이 선정한 작품이라고 하던데요.

국립극단이란 처음 작업을 하고 명동예술극장에서의

연출도 처음이니까 극장 공간이나 극단이 갖고 있는 격조나 분위기에 어울리면서도 연극성이 살아있는 작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동안에 대부분 서양 작품이 올라갔으니 자연스럽게 중국 고전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중국 고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데요, 언제부터 관심을 두셨어요?

청계천 헌책방을 돌면서 원대 희곡선집이라는 책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셰익스피어보다 먼저 쓰여진 시대인데 그 때의 연극성이 셰익스피어보다 앞서있던 느낌을 받았어요. 연극이란 쉽고 간단한 거거든요. 곤장 80대를 때린다고 칩시다. 셰익스피어 극에서는 이런 설정을 안 하는데, 원대 희곡은 때리거든요. 10대, 20대, 30대, 80대... 이러면서 80대를 다 때리는 거죠. 난 그게 너무 연극적이었던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관점의 차이인가요?

연극이 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차피 연극 속에서 진짜 힘줄이 터지고 피골이 상접한 걸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대, 10대, 20대, 80대가 됐을 때, 우리는 80대를 맞았다는 걸 바로 인정하게 돼요. 이 사람이 장난처럼 맞았지만, 절뚝거리면 우리 기억 속에는 80대를 맞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맞고 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퇴장이라고 되어있어요. 밝은 낮에 암전도 없이 죽고 일어나서 바로 나가야 돼요. 얼마나 박력 있어 보여요? 서양 연극은 그 장면을 마지막에 배치하고 암전을 시키고 안 보이게 하는데, 원대 희곡에선 다 보이게 써놨다는 거죠.

'각색의 귀재'라는 별명까지 불을 정도로 원작을 잘 보이게 하면서도 다르게 각색해 오셨어요. 각색을 하려면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모아야겠다' 같은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요.

대본 첫 장면을 보면 몇 페이지에 걸쳐 설명만 나와요. 영첩이나 제미명이나 신오도 출연하지 않고 한 사람의 대사로 쭉. 아마 3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관객들은 말만 들었지 눈으로 본 건 없잖아요. 본 게 없으니 쌓인 게 없고요. 그래서 인물들을 다 등장시킨 거죠.

정영 아내도 원작에는 없는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내는 아예 등장도 안 했죠. 애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뺏기지 않으려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나 감정을 극대화 시키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습을 보면서 정영 아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드라마적으로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n분의 1이예요. 아내도 조씨고아를 위해서 우리 정발이 뭉까지 내 뭉까지라고 하고 끝내는 복수를 다져놓는 장치로서 작용을 합니다. 앞에서의 조삭, 공주, 공손저구가 죽는 것과는 다른 훨씬 더 센 충격으로 복수를 다져놓는 거죠. 막 구성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막을 내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흐르는데... 배우들도 힘들고 클라이맥스를 찍어 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목자 역할이 원작에는 있었나요, 각색을 하면서 넣은 건가요?

각색하다가 넣은 거예요. 아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에서 아무리 소품으로 해도, 리얼 타임이기 때문에 어 디로 될지도 모르고 느낌이 아름답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음향효과를 줄 때도 맞추기가 어렵죠. 우리들은 그걸 오랫동안 보면서 도안고의 잔인한 느낌이랑 우리의 슬픔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목자였어요. 그 슬픔을 공손저구나 정영이 보면서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관객들도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도안고, 악의 인물이죠. 도안고가 마지막에 정영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진즉 말하지 않았어. 그 기분을 알려줬을 텐데"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뭡까요?

정영이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허의 느낌, 나도 복수 했는데 그 기분 별로입디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서로 편하지 않다는 거죠. 난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원작에선 도안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죽는다고 나와요. 중국 고전은 그렇게 끝에 혹 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첫 리딩을 하고 나서 복수가 이 시대에 무엇이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내가 복수의 피해자가 됐으면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복수가 꼭 후련하지 않다,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다는 거죠. 복수를 해서 끝나는 거면 좋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수 끝에 공허함과 허망함만 남지 뭐가 남겠어요. 그 쓸쓸함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공평해야지'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전의 작품들을 보면, 재기발랄하기도 하고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계속 웃음을 만들어 내곤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정통비극으로 가고 있던 말이에요.

이 작품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배우들이 장난치는 게 너무 싫고, 첫 부분에야 재기 발랄하게 갈 수 있어

도 정통비극이죠.

원래 보이던 연출님 스타일이 약해졌다고 할까요. 이 작품이 고선웅 연극의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는 건지요?

<홍도> 때부터 변했어요. 까부는 것도 싫고요. 경기도 립극단 예술감독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치기, 장난기가 많이 정리도 됐고요. 대본에 욕 안 써요. 이제 그런 느낌이 싫더라고요. 경건하고 즐겁게 하는 거지요. 지루하지는 않게 풀었다고 생각해요.

복수의 씨앗이라는 부제를 뽑아내긴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씨고아>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말 한마디의 약속을 지키는 고난의 20년이죠.

그 길을 가는 한 필부의 이야기?

그렇죠.

다시 그 질문이 남더라고요. 정영은 왜 거기에 있었을까? 정영의 마음은 뭐였을까?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이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혼탁한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런 뜻 하나로 그의 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극장에 들어가기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걸 해결하고 싶으세요?

템포감. 연출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템포감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약속에 의해서 감정도 몰고 가도록 연습해야죠.

마지막 목자의 대사가 이 연극에 대해 환기시켜줍니다. 광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관찰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연극의 방점을 어떻게 찍으려 하신 건가요?

주제를 정확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연출이나 작가로서, '이 작품은 이런 애깁니다. 우환을 만들지도 당하지도 마시고, 갑자기 돌아보면 짧은 꿈이니 좋게만 사시다 가시라고.' 관객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말고 삽시다.' 그런 이야기죠.





중국의 고전, 세계의 고전, 『조씨고아』 심층읽기

오수경
번역: 드라마트루그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20세기 중국 최고의 학자 왕국유(王國維, 1877-1927) 선생은 중국 희곡 가운데 특별히 관한경(關漢卿, 1219-1301)의 『두아원(竇娥冤)』과 기군상(紀君祥, 13세기 중후반 생몰 추정)의 『조씨고아(趙氏孤兒)』 두 작품을 꼽으며, 세계적인 비극들 가운데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평한 바 있다. 이보다 약 이삼백 년 앞서 명대의 극작가 맹칭순(孟稱舜, 1599-1684)은 기군상의 『조씨고아』에 대해 “천고에 가장 통쾌한 일이므로, 가장 통쾌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 작품의 구성과 표현을 극찬하였다. 『조씨고아』는 오래도록 중국인에게 사랑받은 작품일 뿐 아니라 중국 희곡 가운데 가장 먼저 해외에까지 소개되어 18세기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은 작품이기도 하다. 2015년 가을 우리나라에서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극단 무대에 올린다. 같은 세계적인 비극이라 해도 가까운 나라의 『조씨고아』가 먼 나라의 『햄릿』보다 훨씬 낫선 것은 왜일까? 역사극, 복수극, 비극, 원작극 등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 『조씨고아』, 조금 가까이다가가 볼 일이다.

1. 역사극 『조씨고아』

『조씨고아』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연극이다. 선진 시대 『춘추』, 『좌전』, 『국어』, 『공양전』 등에 보이는 단편적인 역사 기록에서 출발하여, 사마천의 『사기』에 이르러 충신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 구조로 이야기 맥락이 형성되었다. 『춘추』에는 그저 “대부 조동(趙盾), 조괄(趙括)을 죽였다”로 압축되어 있던 모반 사건 기록이, 『좌전』에서는 장희가 시숙부 조영(趙嬰)의 문제로 조씨 집안을 반역 모의로 고발하면서 풍파가 일고, 이후 한결(韓厥)의 상주로 조씨고아 조무(趙武)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미 조순(趙盾)을 돕는 서예, 제이명(提明), 영첩(靈輒) 등의 인물이 등장한다. 사마천의 『사기』 중 『조세가』에서는 『좌전』에서 진(晉)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던 부분을 조씨(趙氏) 집안에 초점을 맞추어 조순과 도안고(屠岸賈)의 충신과 간신의 갈등으로 재구성 하면서, 지금과 같은 역사 서사물의 틀을 확립하였다. 이후 이 역사적 사건은 조씨고아를 둘러싼 극적인 이야기로 전승되면서, 다양한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유가 사상이 국교로 확립된 한나라 때 무량사(武梁祠) 석각(石刻)에 이미 이 이야기를 조각으로 새긴 것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만큼 널리 알려지고 공유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한나라로부터 유가 사상





이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확립되었는데, 효와 절과 충의는 그 무엇보다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덕목인 만큼, 공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적 복수를 통해서라도 효와 절과 충을 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던 것이다.

역사극은 원래의 역사에 충실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서사로서 픽션화된 것도 많다. 그래서 항상 기록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사실 역사 기록 자체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도 늘 의문이지 않은가? 『사기』에서는 조씨 집안의 조순, 조삭^{趙朔}, 조무를 중심으로 하고, 한궐을 비롯한 의인들 및 공손저구^{公孫祿}와 정영을 재배치하여 조씨고아를 둘러싼 드라마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후대의 작가들은 이 극적 서사를 본격적인 드라마로 만들어 공연 무대에서 관객들과 직접 만났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나라 때 기군상의 잡극 『조씨고아』이다.

역사극이 많이 공연되는 이유는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려는 뜻도 있겠지만, 옛날을 빌어 현재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조씨고아의 이야기는 송 원대에 더욱 큰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우선 송대는 바로 조씨의 왕조였기 때문이다. 조광윤^{趙光胤}

國^國이 세운 송나라에서는 조무를 조씨의 조상으로 받들었으므로, 정영은 충제왕^{忠濟王}, 공손저구는 충우왕^{忠祐王}, 한궐은 총리왕^{忠利王}으로 봉해졌다(『몽양록^{夢梁錄}』). 옛 진나라가 있던 섬서성 한성시의 조무를 모신 사당에서는 지금까지도 정영과 공손저구를 함께 모시고 있다. 그런데, 송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과 몽고족이 세운 원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중원을 잃고 남방으로 피난을 오게 되자, 여러 충직한 이들이 자기를 희생하여 조씨 집안의 맥을 잇게 한 이야기가 많은 한족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도 당연하다. 원 잡극 『조씨고아』에는 도안고에 의해 멸족당한 조씨 가문에 징기스칸의 원나라에 멸망당한 송 왕조를 대비시켜, 이족 통치 하인 원대에 한족 왕조의 부흥을 기대하는 민족 정서를 기탁하였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원 잡극 『조씨고아』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대부분의 중국 소설, 희곡과 달리 복수와 설원^{雪冤}을 이야기하는 비극이어야 했다. 멸족의 아픈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은 회복의 전망을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림을 통해 고아와 관객에게 다시 한번 극한의 희생을 수반한 핏빛 역사를 환기시키는 이유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공유해야 회복의 당위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원 잡극 『조씨고아』

『조씨고아』는 기군상의 원 잡극본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씨고아의 이야기가 원 잡극으로만 창작된 것은 아니다. 민간의 이야기 전승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므로 텍스트가 전하지 않아 지금 그 자세한 양상을 알 수 없으나, 많은 이야기본과 연극본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원 잡극이 유행할 당시 남방에는 남희라고 하는 장편희곡이 유행했는데, 송원간 작품인 남희본 『조씨고아보원기(趙氏孤兒報冤記)』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 그 후에는 이 남희본과 잡극본을 함께 수렴한 원대의 남희 『조씨고아기』 등이 나왔다. 명대에는 고아를 구하기 위해 희생된 8명의 의사를 지칭하는 『팔의기(八義記)』라는 장편 희곡이 나와, 명청대 사대부 문인들 사이에 널리 유행한 연창양식인 곤극으로 공연되었다. 그러나 이 장편희곡들은 명청 시기 중국 희곡의 전형을 따라 조소과 장희가 죽지 않고 나중에 가족이 함께 만나는 대단원 결말을 채택하고 있어서 원 잡극과 같이 처연한 비극적 정서에 이르지 못하는 못한다. 그 후에도 『조씨고아』는 경극, 천극, 진강, 상극, 한극, 월극, 예극, 고강 등 여러 지방희에서 중요한 레퍼토리로 공연되고 왔고, 그 핵심부분인 <수고구(搜孤救孤)>는 20세기 초 경극 명배우들이 다투어 녹음을 남긴 인기 레퍼토리였다. 최근에도 연극과 영화, TV드라마로 계속 리메이크 되고 있다.

『조씨고아』의 작가 기군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원 초기 작가로 대도(지금의 복경) 사람이며, 잡극을 6종 남겼다고 하나 『조씨고아』 외에는 『진문도오도송음몽(陳文圖悟道松陰夢)』의 곡이 몇 곡 남아 전할 뿐이다. 이처럼 원대의 작가들은 대부분이 무명작가들이고 혹은 이름을 알 수 있다 해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문인은 별로 없다. 이는 몽고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원대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다. 이미 송대부터 중국에는 연극 장르가 크게 발달하여 도성에는 룯데월드 같은 종합오락 시설이 여러 곳 있었고, 그 규모도 컸다. 그 안에서는 각종 연희가 공연되었고 사람들은 돈을 내고 구경하였다. 원 제국은 농경 중심의 중국에 유목적 사회 시스템을 접목시켜 상업이 더욱 발달했고 사회의 유동성이 커져, 대도시나 무역항 등을 중심으로 연예가 크게 발달하였다. 중원까지 통치 범위를 확대시킨 원나라의 몽고인, 색목인 상인과 관리들에게 다른 중국 문학보다는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연극 장르가 더 선호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대에는 약 80년간 과거제도가 폐지되어, 송대까지 크게 확대되어 온 과거시험을 통한 입신 양명의 길이 닫혀 버렸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일시에 출로가 막혀 버린 많은 선비들이 생계를 위해 글방 선생이 되거나 관가의 아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시중 연예물의 작가로 나섰다. 이들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작가들이 민간 연예 창작에 참여하면서 문학성이 뛰어난 희곡이 나오게 된 것이다. 원 잡극이 동시대 남방의 희문보다 더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 많은 이유이다. 비교적 늦게까지 남송 치하에 있던 남방의 선비들은 아직 이런 희곡 창작이나 각색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원 치하의 작가들 가운데는 단순한 오락용 연예로의 희곡 창작에 그치지 않고 뚜렷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갖고 창작에 임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당시 사회 문제를 제재로 삼아 시사 이슈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이나 과거 문인들의 이야기를 빌어 당시 지식인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문학 속에서 보상을 구하는 작품도 나왔고, 옛 역사 소재를 취하여 은유적으로 현실을 다룬 작품도 나왔다. 『조씨고아』는 바로 이러한 작품 중의 하나였다.

이렇게 일시에 뛰어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 13-4세기에 걸쳐 원 잡극은 약 700부 이상의 작품이 생산되었고, 그 중 지금까지 완전한 텍스트가 전하는 것이 170부 정도 된다. 대부분의 중국 전통극이 수십 단락에 이르는 장편 희곡인데 비해, 원 잡극은 기본적으로 4단락으로 구성된 희곡이다. 이는 원 잡극이 도시 극장을 중심으로 하루저녁에 공연될 수 있는 시간적 길이를 염두에 두고 발달한 희곡임을 말해준다. 또한 여러 배우가 역할을 나누어 대사와 연기를 하지만, 창은 전 작품을 통틀어 한 사람이 맡아 하는 매우 독특한 극양식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창하기에 무리가 없는 분량이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비중이 큰 창 의 음악적, 문학적 수준이 작품 성공의 관건이었다. 극단 입장에서는 창을 잘 하는 남녀 배우 한 사람만 있으면 상당수의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었을 것이다.





3. 『조씨고아』의 해외전파

『조씨고아』는 해외에서도 일찍부터 크게 주목 받았다. 해외로의 전파는 처음으로 예수회 선교사 조세프 앙리 마리 드 프레마르(Joseph Henri Marie de Prémare) 신부에 의해 1731년 프랑스어 『L'Orphelin de la Maison de Tchao』로 번역되었고, 1741년 영국의 윌리엄 아세트(William Ha-chett)는 『The Chinese Orphan: An Historical Tragedy』로 번역하였다. 공연으로는 175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메타스타시오(Pietero Metastasio)의 오페라 <L'eroe Cinese>가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은 볼테르(Voltaire)가 각색하여 1755년 8월 Theatre Francais에서 초연한 <L'Orphelin de la Chine>였다. 파리뿐 아니라 비엔나, 코펜하겐, 스톡홀름에서 상연되었고, 영국에서도 성공을 거두어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영국의 아서 머피(Arthur Murphy)가 볼테르 본을 기초로 재창작본 『The Orphan of China』를 출간했고, 프란시스코 비안키(Francesco Bianchi)는 1787년 오페라 <L'Orphano Cinese>를 작곡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2년 영국 The Royal Shakespeare Company에서 제임스 펜튼(James Fenton) 각색, 그레고리 도란(Gregory Doran) 연출의 연극 <The Orphan of Zhao>로 공연된 바 있다. 이들은 원 작극 버전과 명대 버전을 버무려 새롭게 각색하여 공연하였는데, 역사적 사실보다는 조순과 도안고의 갈등에 집중하며, 그로 희생된 정영 아들의 비애에도 주목하였다. 공주가 살아남아 복수의 공포로부터 고아를 위로하고, 정영 아들의 원혼은 그 무덤 앞에서 자결한 정영의 뜨거운 피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 받는다. 햄릿이 연상되는 귀혼이 등장하는 비극의 형식에 복수를 해야 하는 조씨고아의 고통과 버림받아 생명을 누리지 못한 정영 아들의 한을 병치하여, 각기 모친과 부친을 통해 치유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시대 말에 희곡이 아닌 소설로 수용되었다. 국문학계에는 한문 소설 『조무전(趙武傳)』과 한글 소설 『보심록(報心錄)』, 『명사십리(明沙十里)』 등이 보고되어 있다. 『조무전』은 명대 소설인 『동주열국지』 57회, 59회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조씨 세가의 이야기를 기초로 한 한문 소설이다. 1854년 금현(金顯)이 지은 것으로 서명이 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고, 약 14,500자로 된 필사본이 남아 있다. 조석을 주인공으로 삼아 조순이 아닌 조삭과 도안고의 대립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본래 이야기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조삭의 충심과 장희 공주의 현덕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조무가 부모를 추모하며 상을 받드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 성리학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도덕과 예법이 더욱 강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한글 소설인 『보심록』에서는 조씨고아 이야기의 기본 틀을 채용하되 등장인물을 양세충, 증문효, 화의삼 등으로 바꾸었다. 주인공인 양세충이 죽지 않아 더 복잡한 인과응보 관계를 펼쳐가는 장편 군담 소설이다. 중국희곡을 수용할 때 공연용 희곡 문학이 없던 조선에서는 대개 소설로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먼저 한문 소설본으로 기록되었다가 다시 부연하여 한글 소설로 발전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한국 연극무대에서는 2006년 극단 미추 창단 20주년 기념으로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조씨고아>가 공연된 적이 있다. 중국 연출가 티에친신(田沁鑫)이 자신의 중국 공연 버전을 다시 각색한 것인데, 분열된 자아를 여러 배우가 나누어 표현하는 독특한 해석과 강렬한 이미지의 중국 비극으로 한국 관객들과 만났다.

중국 희곡 가운데 이렇게 장구한 시간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수용된 것은 『조씨고아』가 유일할 것이다. 『서상기』와 『모란정』과 같은 사랑 이야기도 널리 전파되었지만, 처연한 복수의 모티브를 다룬 역사극 『조씨고아』는 충간과 선악의 투쟁에서 인간 고유의 덕인 신의를 지키기 위한 자기 희생에 이르기까지 더욱 보편적 정서로 접할 수 있는 레퍼토리로써, 다양한 변주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립극단의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비교적 원 작극에 충실한 각색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원작의 작품성을 살리는 동시에 현대적이고 한국적인 감수성으로 자연스럽게 원작이 지닌 비극적 에너지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고선웅 연출의 놀이로 연극이 지니는 에너지는 이러한 비극에서도 독특한 한국적 미감을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한다.





끝나지 않은 복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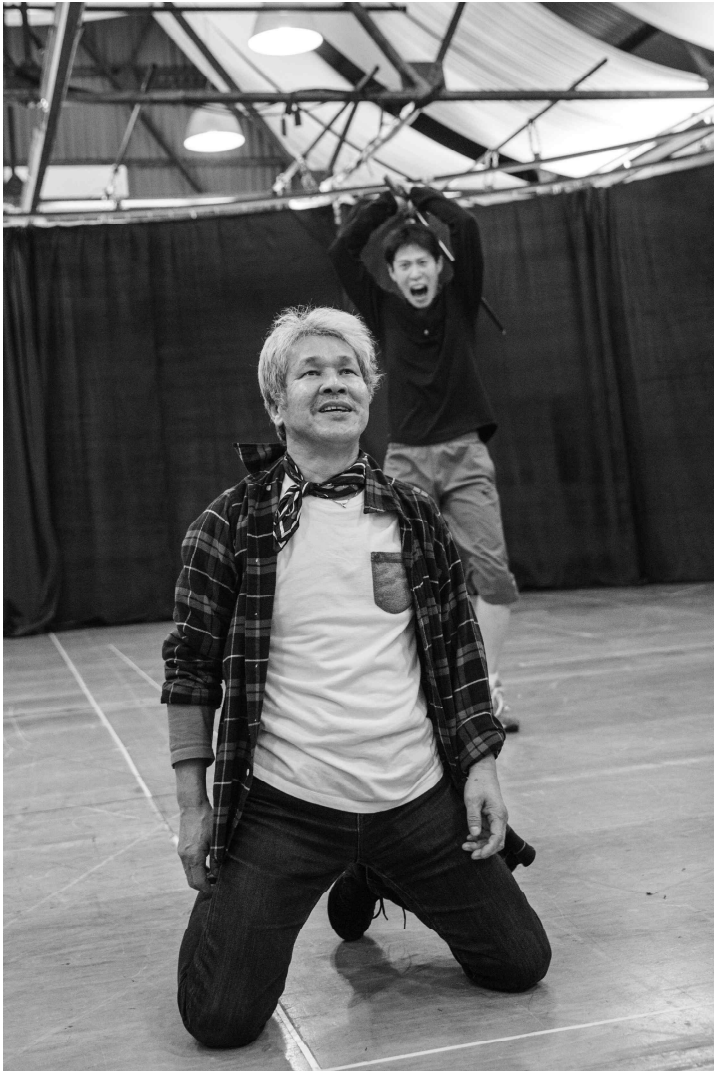
공원국
중국사학자 / 작가

흔히 춘추전국시대에 중국의 골격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된 기나긴 상잔 끝에 통일제국 진^秦이 출현했으니 이는 빈말이 아니다. 통일제국 이후 20세기 혁명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중국의 체제는 너무나 안정되어서, 혁명가들은 변하지 않는 이 강고한 체제를 깨트리려고 싶어 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책들이 경^經이 되어 중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고, 그 시대의 관료체제는 여러 왕조의 옷만 갈아입은 채 계속 살아남았으며, 심지어 그 시대의 언어를 현대인이 별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 있다. 지구상에 이렇게 강고하게 유지된 체제는 중국 빼고는 없다. 로마가 몇 갈래로 나뉘어 수많은 문화권으로 분화된 것만 봐도, 그보다 컸던 중국이 오늘날 그 모양으로 남아 오히려 확대된 것은 역사의 미스터리다.

흔히 역사책보다 예술이 더 사실^{事實}을 잘 드러낸다고 한다. 아마도 역사책의 무미건조한 서술에서 사라진 상상력이 예술로 찾아와 죽은 사실에 피와 살을 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근거 없는 상상이란 망상에 불과하지만, 사극^{史劇}의 상상은 무지렁이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추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사실의 나열에 숨겨진 구조^{構造}를 드러낸다. 극 <조씨고아>는 사마천의 『사기·조세가』를 근거로 해서 각색한 것이지만 줄거리는 유지한 채 세부 내용을 과감하게 바꾸었다. 그러나 『사기』의 내용 또한 『춘추좌씨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지만 당시 떠도는 이야기들을 참작하여 극작가보다 더 크게 내용을 바꾸었다. 그러니 2천 년 전 사마천 시절에도 대강의 구조는 유지한 채 이야기는 스스로 진화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야기를 만들어낸 구조는 무엇이었을까?

진^秦은 기원전 7세기에 문공^{文公} 시절부터 강대해지더니 기원전 6세기에는 춘추시대 최강이었다. 춘추시대는 보통 삼군^{三軍}, 즉 대략 1만으로 구성된 군단 셋이 한 나라의 기본 무력 단위였다. 그러나 강대국 진은 기본적으로 삼군 두 개를 보유하고 운용했다. 어지간한 나라의 두 배의 무력을 가진 셈이다. 6개로 된 각 군단의 수장을 경^卿이라고 했는데, 대개 커다란 가문의 수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 중 한 자리는 이 극의 주인공 ‘고아’의 가문인 조^趙씨 가문에게 돌아갔다. 극중 인물 한궐의 가문인 한^韓씨 또한 한 자리를 차지했고, 위^魏씨, 지씨 등이 있었다.





한 하늘에 두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각자 군대를 거느린 여섯 경과 그 위의 군주까지 있었으니 한 하늘에 일곱 개의 태양이 떠 있던 격이었다. 그렇게 일곱 태양이 동시에 떠 있으니 뜨거워져 싸움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가문과 가문, 군주와 특정 가문, 군주의 측근과 가문이 권력을 두고 경쟁했고, 적대감이 극에 이르면 살육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언제까지 싸움이 이어질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태양이 하나만 남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물론 임시 대안이 있었다. 태양들이 하늘의 한 분야를 차지하며 갈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6경의 투쟁과정에서 살아남은 가문이 조씨, 한씨, 위씨다. 그러나 이 세 태양이 남고 오히려 진나라 군주의 태양이 떨

어지고 말았다.

조씨 가문이 화를 입은 이유는 나머지 가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주 또한 6경의 성장에 두려움을 느꼈고 신흥 세력을 통해 그들을 견제하고자 했다. 극에 나오는 '도안고'라는 이는 군주 측에 붙은 신흥세력의 상징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문제의 발단은 극중 영공과 조씨 가문의 직접적인 대립이었고, 영공은 조씨 가문의 역습을 받아 사망한다. 극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 역사가 수정되었지만 그 뼈대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군주, 여러 권문세족, 군주에 붙은 신흥세력, 어디에서 붙지 않고 권력의 향배를 살피는 무사계급이 서로 연결되고 배반하면서 알력을 벌이는 과정에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끔찍한 학살극은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 가문을 몰락시키면서 후사까지 끊어 화근을 없애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발전 과정에서 약간의 멈춤과 역풍은 있었지만 춘추전국시대 이래 지금까지 중국은 끊임없이 땅을 넓혀왔고, 그 넓은 땅을 다스릴 거대한 권력을 두고 춘추전국시대와 유사한 권력쟁탈의 구조가 이어졌다. 이 넓은 땅을 중앙 혼자서 다스릴 수 없어서 봉건 제후들을 세웠고, 이들이 춘추시대 진^ㄷ의 6경과 같은 역할을 해서 자기들끼리 알력하고 때로는 군주와 각을 세웠다. 궁중 안에서도 이런 알력은 반복되었다. 군주, 측근, 외척, 심지어 환관까지 싸움에 가담했다. 권력 다툼으로 인해 만들어진 복수극의 구조는 거의 2천년 동안 유지되었던 셈이다. 그런 복수극은 중앙을 넘어서도 반복되었다. 지방에도 호족과 관료와 백성이 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중국에서는 복수극이 오래 전에 만들어져 최근의 무협지까지 면면히 맥을 잇고 있다.

여기서 중국식 복수의 문화를 소개해야겠다. 춘추시대까지는 사적인 복수가 만연했다. 그러나 뒤이은 전국시대에 이르면 국가는 복수의 권한을 독점하려 한다. 조씨네 고아의 이름은 무^ㄹ이고, 그는 실존인물이다. 그는 가문들 간, 심지어 가문 안의 투쟁을 생생히 목격하며 성장했다. 그리하여 그는 대단히 신중한 정치인이 되어 가문을 키우고 군주를 보좌한다. 그러나 겨우 몇 년 후에 조씨는 아예 진 공실을 무시하고 조나라를 세운다. 그야말로 조씨의 나라라는 뜻이다. 진을 나는 조씨, 한씨, 위





씨는 모두 한 나라를 세우고 복수의 권한을 군주에게 집중시키는 법가^{法家}의 정책을 편다. 가문끼리 함부로 무력을 쓸 수 없으니 이제 복수도 국가의 규범, 즉 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한 그 법이 공평무사한 것일까? 법이 군주의 손에 들어갔지만 그 군주가 만인을 위해 공평하게 법을 사용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수록 그 권력의 단맛을 누리려는 이들이 그 한 사람, 바로 왕 주위로 몰려 들었다. 그 중 사악한 이들은 왕의 법을 정적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포악한 왕 또한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 법이란 결국 사람이 행하는 것, 공법^{公法}의 이름으로 사람을 처단하지만 그 안에 억울한 이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다. 사서에 억울한 죽음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기』를 써서 <조씨고아>라는 비극의 저본을 제공한 사마천 역시 바른 소리를 하다 한나라 무제에게 억울하게 궁형을 당한 사람이다. 죽고 싶었지만 기어이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기에 사마천은 대신 붓을 들었다. 조씨고아는 어찌면 사마천의 분신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복수극은 구조 속에서 희생된 무수한 사람들을 상상력의 힘으로 불러들이는 진혼곡이다.

이 진혼곡에는 반드시 칼과 사적인 복수가 등장한다. 사마천이 쓴 「자객열전」부터 근래 문호 루쉰이 옛 이야기를 고쳐서 쓴 「주검^{鑄劍}」, 그리고 김용을 위시한 무협소설가들의 작품까지 한결같이 이어져온 전통이다. 주인공을 흔히 협객^{俠客}이라 칭하는데 협^俠이나 객^客이나 모두 반국가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엄격한 국가주의자인 한비자가 ‘칼을 차고 다니는 유희^{遊俠}의 무리는 국가의 적이다’고 했다.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며 칼을 차고 다니는 이들은 중국문화의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법 밖에서 자신들의 의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자유인이다. 이런 이들이 밭 디딜 현실의 공간은 좁기에, 그들은 예술 작품 안으로 들어가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 극에 나오는 제미명이나 영첩은 위험에 처하여 사적인 의리를 지키다 죽는 협객들이며 모두 실존 인물이다. 그들은 정의가 제도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각 행동한다. 극과는 달리 무서운 개를 풀어서 조돈^{趙盾}을 해치려 한 이는 군주 영공이었다. 제미명은 군주는 아랑곳없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무고한 조돈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러한 협^俠 문화는 주류문화와 대립하는 한 축으로 면면히 이어졌다. 대개 국가는 안정될수록 더욱 인민을 통제하고자 한다. 한^漢제국 이래 중국은 문치^{文治}를 이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사실상 가장 정교한 형태의 통제방식이다. 사람들의 머리 속에 유가의 상하관념으로 묶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당장 생각하는 것이 복수가 아닌가? 법도 멀고 문^文도 멀때 바로 떠오르는 것이 주먹과 칼의 복수다. 사적인 복수가 제도적으로 금지될수록 그들은 더욱 복수를 염원한다. 전국시대부터 이런 협객들이 역사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다. 그 중에는 왕족도 있었다. 전국시대 대협으로 칭찬받는 위나라 신릉군^{信陵君}은 사적으로 사람을 풀어 후궁의 복수를 해줬다. 그는 심지어 역사^{力士}를 써서 병권을 쥔 대장을 죽이고 군권을 훔치기도 한다. 왕이 너무 어리석으니 법대로 하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훗날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은 그런 신릉군과 그 주위의 협객들을 위해 <협객행>이라는 노래를 지어 “비록 죽을지라도 협골의 향기는 세상의 영웅들에 부끄럽지 않으리라^{縱死俠骨香, 不慙世上英}”고 기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백 또한 협객의 문화의 산파였다.

의협심과 복수.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제도화된 체제 아래서 끊임없이 살아남았다. 이 문화는 중앙이 안정되었을 때는 잠시 수중으로 가라앉았지만 분열의 시기 혹은 핍박의 시기가 오면 다시 일어났다. 때로는 가혹한 관리를 찾아가 죽이고, 때로는 홀몸으로 담을 넘어 어버이의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것은 불문가지. 그래서 복수를 수행한 이는 떠돌아다닌다. 그리하여 이른바 의협심이 있는 떠돌이, 즉 협객이 된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힘 있는 이나 사악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법을 이리저리 굽힌다. 법이 굽을 때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 복수와 협의 문화가 앞으로 얼마만치 이어질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물론 여기 한국에서도 말이다.

1
연극 <조씨고아>의 조돈 趙盾을 말하며, 인명에 사용될 경우 '돈'이라 표기하는 것에 따랐다.



시놉시스

"조씨 일족 삼백 명이 모조리 죽고,
겨우 이 아기씨 하나만 남았네.
하늘이시여! 이 조씨고아를 굶어살펴만 주소서."

장군 도안고는 권력에 눈이 멀어 적수인 문인, 조순의 가문을 멸한다. 시골의원 정영은 조씨 집안의 문객이라는 작은 인연으로 자기 자식을 희생하면서까지 조씨고아를 살려야 하는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20년간 복수의 씨앗, 정발을 자신의 아들로 키운다. 이를 알아채지 못한 도안고는 정영을 자신의 편으로 믿고 정발을 양아들 삼아 무인으로 훈련을 시킨다. 정발이 장성하자 정영은 참혹했던 지난날을 토로하며 양아버지 도안고에 대한 복수를 부탁한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정발은 20년 전 죽음을 당한 친아버지, 20년간 키워준 아버지 정영, 그리고 두 얼굴의 양아버지 도안고 사이에서 고민하는데...



복수는 나의 것?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극장 문을 뛰쳐나온 적이 있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복수 3부작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도 극단적인 폭력의 복수가 악순환되는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만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영화를 보고 영화 속 범죄를 모방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듣기도 했다. 그런 잔인한 복수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영화 흐름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보인다. 한국문화를 복수문화라고 규정하는 어느 외국 신문의 글을 읽은 적도 있다. 알 수 없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27명의 학생과 5명의 교수를 살해하고 자살한 조승희 사건 때였다.

박홍규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다른 민족에게 복수하겠다는 신의 말이지 내가 나의 복수를 한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말이 아니었다. 물론 개인적 복수도 비정상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민족이나 국가 차원의 복수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 등 집단 차원의 복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복수를 인지상정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복수하는 존재(Homo Ultra)'라고도 한다. 사실 복수는 달콤하다. 불의에 대한 복수는 당연히 정의롭다. 그러나 야만적인 정의이다. 그 결말은 언제 어디서나 쓰디쓰다. 달콤한 독약이다. 피는 피를 부른다. 옛 동양 속담에서 '복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무덤 두 개를 파두어라'라고 하듯이 복수는 공멸의 길이다. 복수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망각하게 하고, 간디가 ‘눈에는 눈이라는 복수를 고수한다면 세상에는 장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듯이 우리를 야만으로 내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의 법칙이란 사실 복수의 허용이 아니라 복수의 악순환과 확대를 막기 위한 제한으로 인류 최초의 법에서 규정된 것이었다. 즉 3800년 전 함무라비 법전의 그것은 복수형을 인정한 것이되 동해(동해) 보복, 즉 100배도 10배도 아닌 1배의 동일한 복수를 인정한 것이었다. 형벌이 개인적 차원의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적 형벌제도로 발전한 것도 동해 보복의 원리에 입각했다. 즉 국가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 결과 국가가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당한 복수를 할 수도 있게 되어 문제가 되었다.

서양에서는 대체로 16세기 이후 개인적 복수를 불법화하고 국가가 복수를 독점하면서 치명적인 폭력이 줄었으나, 동양에서는 19세기 후반까지도 복수가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부모, 형제 등 가까운 일가친척의 복수인 경우 살인에 대해서도 형벌을 크게 낮추주었다. 근대의 가장 위대한 학자로 받들어지는 다산 정약용은 <흫흫신서>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그런 원수에 대한 복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조 역시 아버지의 복수를 한 아들을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한 적이 있다. 정조 자신이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은 탓이라기보다도 유교적 효제의 윤리 덕목에 입각한 것이었다. 20세기 이후 우리의 법에서도 복수는 금지되고 있지만, 법 이전의 사회적 관행이나 의식의 차원에서 19세기까지의 복수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나마 인정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경찰 등 국가권력이 무능할 때 가족이 등장한다. 그래서 다시 ‘복수는 나의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감정일 뿐이다.

서양에서 복수가 줄어든 데에는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 예수는 ‘눈에는 눈’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 대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복수의 반대가 용서이다. 그런데 용서도 복수만큼 분명한 인지상정이요 인간본성이니 허구적인 위선이나 비현실적인 공상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복수와 달리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의 기독교보다 훨씬 빨리 동양에서는 복수 대신 자비, 특히 불살생을 가르친 불교가 있었는데도 왜 더 빨리 복수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불

교보다 먼저 힌두교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폈다. 중국과 한국의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중의 하나로 원수에 의한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실천한 것이 바로 간디의 비폭력이었다. 불의를 불의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그는 집요하게 악을 거부하되 폭력 없이 공개적으로 고통을 수용하여 궁극적으로 가해자를 변화시켰다. 어쩌면 그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정당한 복수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용서를 하기로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것 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인간은 ‘복수하는 존재’이면서도 ‘용서하는 존재(Homo Ignoscens)’이다. 남아프리카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끈 투투 주교가 쓴 책 제목처럼 <용서 없이 미래 없다.> 복수는 안 된다. 내가 받은 고통은 복수가 아닌 용서로 내게서 끝내야 한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복수가 유독 한국인 특유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외국의 영화나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우리 사회가 복수에 사로잡혀 있음은 분명하다. 지나친 경쟁 탓인지 모른다. 분단의 적대성이 우리 모두를 몰들인 탓인지도 모른다. 그 밑바닥에는 뿌리 깊은 신뢰가 아니라 뿌리 깊은 증오심만이 박혀 있는 것인지 모른다. 21세기 전의 고대도 아닌 21세기 현대가 복수의 시대라니 역사는 퇴보하는 것인가? 그래서 바야흐로 복수의 시대인가?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복수로 살아가는 시대인가? 현재의 권력이 모든 문제를 과거의 권력이나 비판 세력 탓으로 돌리고 과거나 배신을 죽이는 복수를 정치라고 하듯이 모두들 남 탓만 하고 서슴없이 남을 죽이는 복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를 발전시키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파괴하기만 하는 현재에 어떤 미래가 있는 것일까?

인간에게는 복수와 용서라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인간의 양면성이다. 개인이나 집단이나 민족이나 복수와 용서라는 두 개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지만 결국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도덕이나 신앙이 필요하지만, 도덕이나 신앙은 도리어 그 반대로 빛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도덕이나 신앙이 본질이 아니고 용서가 본질이다. 도덕이나 신앙은 용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나의 것이다.



연습스케치





커튼으로 만든 놀이터

이태섭
무대디자인

주요작품

연극: 아버지과 아들, 문제적 인간 연산, 이영녀, 리어왕, 리차드 2세, 아워타운, 쥐뿔, 오이디푸스, 시라노 드 베르주락, 오이디푸스 렉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덕혜옹주, 풍금소리, 서안화차, 레이디 맥베스, 짐, 고양이는 왜 혼자 다닐까, 이름, 공길전, 19 그리고 80

기타: 코카서스의 백목원, 단테의 신곡,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외 다수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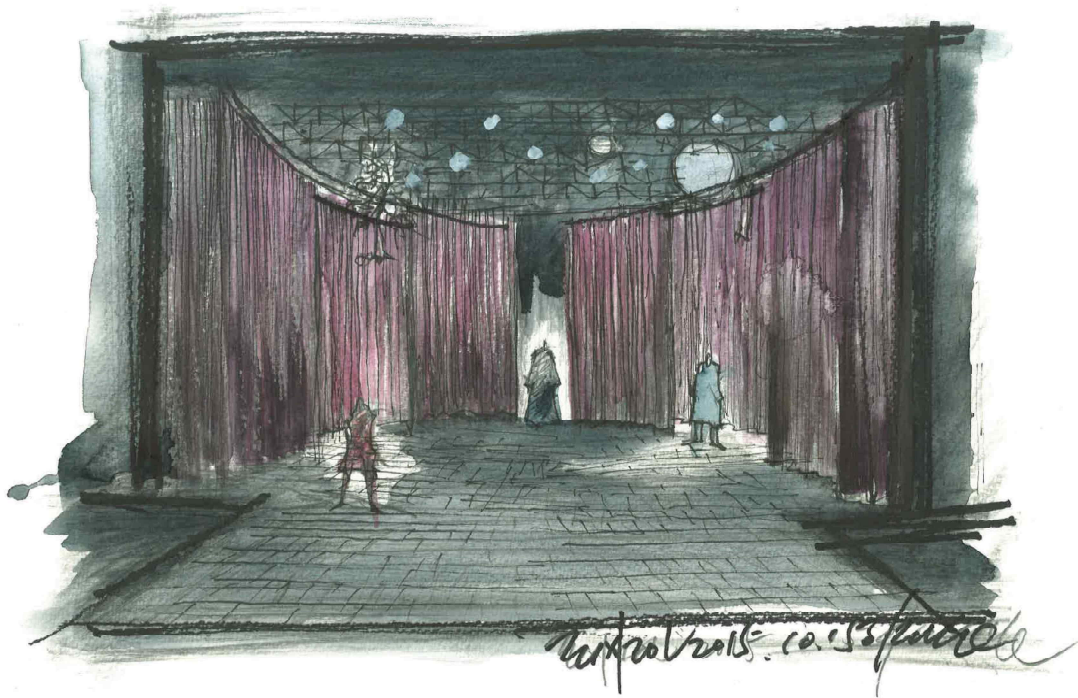
- 2005 제42회 동아연극상 무대미술상 고양이는 왜 혼자 다닐까
- 서울어린이연극상 무대미술상 고양이는 왜 혼자 다닐까
- 2000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특별상
- 1997 무용비평가상 특별상
- 1991 연극의해 최우수 무대미술상
- 제15회 서울연극제 자유참가부문 최우수 무대미술상 파우스트

극장은 아직도 평균적 관객들에게는 변신하는 곳,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스펙터클을 만들어 내는 곳으로 인식되거나, 진지한 생각을 요구하는 엄숙한 장소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지나치게 만들어진 공간과 빛을 거부하고, 순수한 민낯의 공간에서 배우들의 소리와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놀이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연출가의 바램이었다. 그것이 극장예술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간을 채우는 것에 익숙한 디자이너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디자인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소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집에 있는 커튼조각으로 막을 만들어서 배우 흉내를 내며 놀던 기억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무대 디자인의 결정적인 모티브라고 볼 수 있다.

단순한 7미터 높이의 질은 자주색 커튼 조각들로 만들어진 공간이 '즐거운 놀이터'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출연진



장두이 - 도안고

연극

<벚꽃동산> 15, 가예프,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리어왕> 15, 리어, 명동예술극장
 <오늘 또 오늘> 15, 성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쥐뿔> 12, 트로터, 대학로 SH아트홀
 <아메리칸 환갑> 12, 전민석, 기림극장
 <아내라는 직업의 여인>
 11, 잔, 설치극장 정미소 외
 <한강의 기적> 11, 박정희, 알과핵 소극장
 <사랑을 주세요> 09, 루이, 블랙박스 씨어터
 <Oh! Jerusalem>
 88, A Tourist Jerusalem, 이스라엘 Israel Theater
 <Agamemnon>
 87, Agamemnon, 이탈리아 로마 Spoleto Teatro
 <DiDiMus> 86, DiDi, 미국 LA Grotowski Theater
 <Tibetan Book of the Dead> 83, A Dead
 Person, 미국 뉴욕 La Mama Annex Theater

수상

2006 제24회 대한민국회극문학대상
 2003 뉴욕 드라마 클럽 특별상
 1995 백상예술대상 남자연기상
 1989 아시오 소수민족 예술기상(뉴욕)
 1983 미국 OBIE연극상



하성광 - 정영

연극

<The Power> 15, 노숙자 외, 명동예술극장
 <남산에서 길을 잃다>
 14, 김승렬, 국립극단 소극장 판
 <배수의 고도>
 14, 노자키 사이조,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농담> 13, 오창강, 남산예술센터
 <풍찬노숙> 12, 차창국, 남산예술센터
 <인어도시> 10, 이씨,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용산, 의자들> 09, 남자, 브로드웨이 아트홀 2관
 <리어왕> 06, 에드거, 문예회관 대극장
 <대대손손> 05, 마이코, 예술의 전당
 <70분간의 연애> 05, 남자, 행복한 극장
 <뭇, 햄릿에 대한 명상>
 05, 햄릿,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수상

2006 서울연극제 신인연기상



임홍식 - 공손저구

연극

<허물> 15, 아버지1, 국립극단 소극장 판
 <차이메리카> 15, 프랭크,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공장> 14, 윤동주 조부, 이해량예술극장
 <템페스트> 14, 알론조,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나, 왔어요, 엄마> 14, 나오부미, 산울림소극장
 <세 자매> 13, 체부딕킨,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휘가로의 결혼>
 10, 브리드와중,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04, 안중근 조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다수



이영석 - 영공

연극

<조치원 해문이>
15, 이성국,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푸르른 날에> 11-15, 월정, 남산예술센터
<고도를 기다리며> 07-15, 포조, 산울림소극장
<배웅> 13, 순철, 설치극장 정미소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12, 김진우, 그라운드씬
<고곤의 선물> 09/12, 담산스키, 명동예술극장
<백년, 바람의 동료들> 11, 아제,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다수

수상

2014 서울연극인대상 남자연기상
2000 한국연극협회 특별상
1994 한국연극협회 연극인상
1994 한국연극배우협회 올해의 우정상



유순웅 - 조순

연극

<염쟁이 유씨>
04-15, 유씨,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외
<만두와 갈창>
13, 유칼창, 대학로 예술공간 혜학 외 다수

연출

<강> 05, 국립극장 하늘극장
<집> 04, 청주예술의전당
<귀향> 03, 청주예술의전당

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 <똥다 패밀리>

영화

<극비수사>, <마담뽕덕>, <명량>, <광해
왕이 된 남자>, <의뢰인>

수상

2014 2인극페스티벌 연기상
2008 HCN 현대방송 현대예술상
2007 서울연극제 인기상
2005 전통 연희본 공모 최우수상



조연호 - 제미명, 사령, 공손저구의 가동, 장천

연극

<가을 반딧불이>
13-15, 슈헤이,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타클라마칸> 14, 사내, 연우소극장
<상록수> 14, 강기현, 당진 문예의전당 소공연장
<골까담 호프>
12, 소개업자, 대학로 스타시티 TM스튜디오
<여름과 연기> 07, 도어머스,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뷰티풀선데이> 07, 연출, 한양레퍼토리씨어터
<아일랜드행 소포> 06, 형, 대학로 마당세실극장
<박무근 일가>
03, 박무근, 동덕공원예술센터 대극장
<사천의 착한 사람>
98, 망령난 할배, 학전소극장 외 다수

수상

2015 2인극페스티벌 연기상
2006 거창연극제 연기상





이지현 - 정영의 처

연극

- <그녀를 축복하다>
15, 선여,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 <민들레 바람되어> 14, 노부인, 수현재씨어터
- <로풍찬 유랑극장>
14, 조귀엽,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슬픈 연극> 14, 심숙자, 아트원씨어터
- <뽕뽕뽕> 14, 다영, 선돌극장
- <달나라 연속극> 14, 여만자, 연우소극장
- <그리고 또 하루> 13, 여자, 아르코소극장
- <뿔> 12, 나조금,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예기치 않은> 11, 수정,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과학하는 마음 - 숲의 심연>
11, 조기봉, 정보소극장
- <1동 28번지, 차숙이네> 11, 차숙, 남산예술센터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10, 근덕택, 문화공간 이다관
- <시동라사> 09, 강정옥, 나운씨어터 외 다수

수상

- 2012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 2009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

장재호 - 서예, 문지기, 군사, 무사, 위장

연극

- <리처드 2세> 14, 로스,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길 떠나는 가족>
14, 종석/포대형 외, 명동예술극장
- <맥베스> 14, 시튼, 명동예술극장
- <아리랑 랩소디> 13, 박살제, 동숭아트센터 동송홀
- <꿈> 12, 조신,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 <궁리> 12, 당직사령,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 <인생> 12, 김단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크로이체르 소나타> 10, 포즈드너이체프, 러시아 아로슬라블 볼코프극장/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벚꽃동산> 10, 로백현,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 <엘렉트라>
08, 오레스테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아름다운 남자> 05, 통수기, 계림극장
-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
07, 상사,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다수

무용

- <파노라마> 14, 해설자, LG아트센터



성노진 - 도안고의 부사, 조순의 즐거, 신하

연극

- <만리향> 14/15, 첫째,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 <차이메리카>
15, 데이빗 바커 외,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공장> 14, 태훈, 이해랑예술극장
- <목란언니> 13, 오영환 외,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콜라소녀> 12/13, 막내아들, 학전블루소극장
- <동 주앙> 11, 동 키틀로스, 명동예술극장
- <다락방> 09, 하세가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철로> 08, 교통경찰 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다리퐁 모단걸>
07, 철석 외,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 <자객열전> 06, 이봉창, 대학로 우리극장
- <웃어라 무덤아>
03, 김순경,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인류 최초의 키스>
02/03, 고성만, 바탕골 소극장 외 다수





호산 - 한걸

연극

- <푸르른 날에> 11-15, 이상무, 남산예술센터
- <칼로막베스>
- 11-15, 막베스,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 <리어외전> 12, 에드먼드, LG아트센터
- <헤다 가블러>
- 12, 엘레르트 리브보르크, 명동예술극장
- <철로> 12, 존 프레스콧,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들소의 달>
- 09/10, 워리 외,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 <락히맨쇼> 11, 나다, 신촌 더스테이지
- <살> 11, 프로메테우스, 남산예술센터
- <오장군의 발들>
- 10, 영현 하사관 외, 명동예술극장
- <태수는 왜> 09, 태수, 정보소극장
- <강철왕> 08/09, 의사, 아르코시티 소극장

뮤지컬

- <원더풀 라이프>
- 11, 라인맨,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외

영화

- <역전의 날>, <무림여대생>, <핀타스틱 자살소동>, <파란자전거>, <천년호>, <청풍명월>, <조폭마누라2>, <킬러들의 수다>

드라마

- <야인시대>, <강이 되어 만나리>



강득중 - 영첩

연극

- <강철왕> 15, 식이/씬글리스1,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
- <칼로막베스>
- 11-15 등짜/멘티스 외,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 <리어외전> 12, 잭, LG아트센터
- <전쟁종결자, 리시스트라타>
- 12, 남자 코러스장, 동숭무대 소극장
- <오헨리의 사랑이야기>
- 06, 신사, 고양아람누리 별모래극장
- <아름다운 사인> 04, 남자, 아리랑 아트홀
- <피카소 톨년 두보>
- 03, 두보, 제주 문예회관 소극장
- <작은 할머니>
- 03, 조춘 아버지,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외
- <마지막 올림>
- 02, 오오시마 소장,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뮤지컬

- <원더풀 라이프>
- 11, 라인맨,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외

영화

- <귀신이야기>, <거북이 달린다>,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해결사>, <평양성>, <인간중독>, <계춘할망>, <해빙>

김도완 - 조삭

연극

- <정글북> 15, 17세 모글리, 산울림소극장 외
- <너는 똥을 누고 나는 물고기를 누었다>
- 14, 해공, 국립극단 소극장 반
- <로미오와 줄리엣>
- 14, 삼촌,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
- <로맨티스트 죽이기>
- 12, 임종화랑 외, 국립극단 백성회장민호극장





김명기 - 신오, 문지기, 군사, 무사, 신하

연극
 <강철왕> 15, 군이,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
 <푸르른 날에> 11-15, 최중사, 남산예술센터
 <칼로막베스>
 10/14, 스윙,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목란언니> 12/13, 리명철,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영호와 리차드>
 13, 영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리어외전> 12, 켄트, LG아트센터
 <로풍찬유랑극장> 12, 로풍찬, 연우소극장
 <들소의 달> 10/11, 치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락화맨쇼> 11, 치과외사, 신촌다스테이지
 <인어도시> 10, 군씨,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선녀는 왜?> 07, 사냥이, 게릴라극장
 <한국사람들>
 06, 모원,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우정원 - 공주

연극
 <이영녀> 15, 인범이네, 국립극단 백성희정민호극장
 <위대한 생활의 모험>
 14, 여자, 키작은소나무극장
 <장화홍련> 14, 무용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14, 나레이션/영주, 게릴라극장
 <로미오와 줄리엣> 12/13, 휘어줌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중극 배경 국가화극원 외
 <개구리>
 13, 어머니/개구리, 국립극단 백성희정민호극장
 <401호 윤정이네>
 13, 커트여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손님> 12, 형수, 국립극단 소극장 판
 <햄릿> 11, 거트루드, 선돌극장
 <Getting out> 11, 알리, 성균소극장
 <해 가져서 어둔날에 옷 갈아입고 어디가오> 09, 광수처,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오스트로프스키의 '숲'> 08, 아끄슈사
 다닐로바,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전유경 - 목자

연극
 <마리아와 함께 아이아아아>
 14, 마리아, 해화동1번지
 <Love & Money> 14, 상드린, 선돌극장
 <아버지의 집> 13, 선생, 남산예술센터
 <해변의 카프카>
 13, 소가/BBC앵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만선> 11/12, PD,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황구도> 11, 캐시, 대학로 TOM 2관
 <따나따나> 10, 따나, 거창국제연극제
 <변신> 10, 젊은여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오늘, 손님오신다>
 09, 얼굴4-엄마, 남산예술센터
 <동강리 미스터리> 08/09, 레지, 정보소극장
 <로베르트쥬코>
 08, 우아한 부인, 우석페퍼도리씨어터

드라마
 <달콤한 비밀>



이형훈 - 조씨고아

(정발, 조무, 도성)

연극
 <필로우맨> 15, 마이클,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변신이야기>
 15, 베르통누스 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해맞이> 15, 코르티카, 대학로 선돌극장
 <해경궁 홍씨>
 14, 내시 외, 국립극단 백성희정민호극장
 <반신> 14, 가정교사, 명동예술극장/일본
 도쿄예술극장 플레이하우스
 <레슬링 시즌>
 12-14, 강석, 국립극단 백성희정민호극장 외
 <히스토리 보이즈>
 13/14, 크라우더,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건축사와 아씨리황제> 13, 건축사, 노을극장
 <왕, 죽어간다>
 12/13, 줄리엣, 가톨릭청년회관 CY씨어터
 <어디든 맨발로> 12, 루크, 정보소극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11, 원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맥베스> 11, 문지기, 설치극장 정미소





스태프

오수경 - 번역·드라마트루그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저서 공저 「중국어학 어떻게 공부할까」, 「BeSeTo10년사」, 「세계의 축제와 공연문화」 / **역서** 「삼인삼색-2008한국회극무대현장(중문)」, 「한국연극사(중문)」, 「중국고대극장의 역사(국문)」, 「버스정류장(국문)」, 「피안(국문)」

고선웅 - 각색·연출

프로필 3페이지

이태섭 - 무대디자인

프로필 19페이지

류백희 - 조명디자인

오페라 팔스타프, 라트라비아타, 오네긴, 피라고의 결혼,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외 / **연극** 로베르트 주코, 선, 관객모독, 앤드게임, 나의 교실, 지상의 모든 밤들, 별이 쏟아지다, 쥐, 대대손손, 이자의 세월, 씨름, 저승, 선양섬의 법제, 루나자에서 춤을, 남아있는 날들, 순례자, 리어왕, 오셀로, 충주의 시대, 미디어 맥시호, 리어외전 / **창극** 옹녀 외 다수 / **무용** 코빨소, 거울속의 거울, 되기되기되기, 카드게임, 불쌍, 11분, 어린왕자, 기억의 양수 / **뮤지컬** 삼월이 오면, 미스터 조, 싱글즈, 원더풀 라이프 외 다수

이윤정 - 의상디자인

연극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초상, 이영녀,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장면을 연습하다, 혜경궁 홍씨, 어무이 계사니, 미스 줄리, 꿈

김태규 - 음악감독

뮤지컬 원더풀 라이프 / **연극** 칼로막베스, 뜨거운 바다, 리어외전, 외톨이들, 흥도 외 / **무용** 우회공간, 2014 community 외 / **영상·광고** 삼성레미안갤러리 tv광고, 대구육상선수권 삼성 갤럭시탭 홍보관 총괄, 일본 하우스텐보스 동영상관, 일본 후지큐하일랜드 프랑스관, 경주 보문단지 보문호 워터스크린

이동민 - 분장디자인

노리프로덕션 대표

연극 살짝 넘어갔다가 얻어맞았다, 아버지와 아들, 슬픈인연, 벚꽃동산, 먼 데서 오는 여자, 줄리어스 시저, 별자리,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보내는 구소련 우주비행사의 마지막 메시지, 바나야저씨, 과부들 외 다수

김해지 - 소품디자인

무대·소품 연극 잘자요, 엄마, 뽕짝,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동작그만, 먼로엄마, 황금연못, 맘모스 해동, 수인의 몸 이야기, 30만원의 기적, 바람직한 청소년, 세자매, 일곱집매, 우리읍내 오페라 라보엠 뮤지컬 군, 커피프린스 1호점, 내 인생의 특종, 힐링하트, 안녕 친구야 / **소품** 연극 아버지와 아들, 과부들, 봄이 사라진 계절, 예술하는 습관, 리어왕 뮤지컬 헤드워, 벽을 뚫는 남자, 미녀는 괴로워, 설록홈즈, TOXIC 외 다수

한지빈 - 무술감독

연극 한꺼번에 두 주인을, 돈키호테, 춘성, 개밥, 칼로막베스 / **방송** 골든 크로스, 뿌리 깊은 나무, 광개토태왕, 대조영, 바람의 나라, 추노,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자유인 이화영, 구미호 여우누이던, 매리는 외박중, 락락락

고재경 - 움직임 지도

고재경의 잠깐만, 고재경 마음콘서트, 게르니카, 바리, 서천꽃 그늘 아래, 너버벌 광대들, 단막극장 프로젝트, 두 도둑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기다리는 마음, 진화, 꿈꾸는 별레들, 이불, 신문, 버블마임 비의 선물, 한국마임 2004, 놀이가 있는 마임, 시계 멈춘 어느날, 한국 마임 2005, 춘천마임축제 한일합동공연, 백설공주, 히트 앤 런 등

서정완 - 조연출

연출 뮤지컬 더 하우스, 너의 시간에 머물다, 나를 부른다, 연극 청춘역습, 낭독공연 고래기름, 낭독공연 대머리여가수, 낭독공연 파우스트 / **조연출** 연극 강철왕, 흥도, 우리 면회 좀 할까?, 패밀리 빼밀리,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창극 번강쇠 점 찍고 옹녀, 뮤지컬 종이비행기

노현동 - 조연출보

조연출 연극 흥도, 강철왕, 칼로막베스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대표
 임영웅 이사 극단 산울림 대표
 윤소정 이사 연극배우
 한태숙 이사 극단 물리 대표
 교회경 이사 흥익대 교수
 박명성 이사 신시컴퍼니 예술감독
 우상일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성규 감사

협찬

(재)국립극단

김윤철 예술감독
 윤미경 사무국장

원로단원

백성희

공연기획팀

박현숙 팀장
 김옥경 김철순 김영래 권용우 PD
 전성애 이현아 조기애 김보전 박연주 객역지원
 정예지 조예지 하우스매니저
 정선미 단원관리

홍보마케팅팀

정명주 팀장
 지민주 손신형 작품개발·국제교류·학술교육
 정용성 박보영 임하라 한나래 정채영 마케팅
 최윤영 이정민 홍보
 지영림 광고
 김태은 홍보물제작
 박미옥 디자인
 최보미 교육사업

무대기술팀

신용수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김승철 신승호 무대감독
 최환석 음향감독
 유옥선 무대음향
 김용주 조명감독
 신동선 류선영 무대조명
 최슬기 홍영진 제작감독
 김선태 무대운영
 노경민 의상관리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예산·회계
 이승용 교육·계약
 방정일 인사·대외업무
 김준경 복무·복지후생
 정병욱 시설·안전 관리
 박예원 정보화·전산
 채민 예술감독 비서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최영애 소장
 유홍영 부소장
 김미선 PD, 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김미정 연구원(협력)

인턴

심소연 이선민 이경빈 이재령 공연기획
 박은선 송민경 홍보마케팅
 이민희 행정
 나혜민 무대감독
 최수진 음향
 김용하 조명
 김혜란 소품
 박미정 의상
 이슬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2015

국립극단 서계 西界



국립극단
SINCE 1950

가을마당

국립극단
가을마당



<p>러시아 문학 · 투르게네프 원작 9.2 - 9.25</p> <p>9月</p> <p>아버지와 아들</p>	<p>이번 가을엔</p>	<p>미국 문제작가 · 에드워드 올비 10.3 - 10.25</p> <p>10月</p> <p>키 큰 세 여자</p>
<p>한국근대희곡 · 유치진 10.22 - 11.1</p> <p>토막 土幕</p>		<p>11月</p>
<p>미국 현대극의 아버지 · 아서 밀러 12.2 - 12.28</p> <p>12月</p> <p>시련 The Crucible</p>	<p>연극 한 편</p>	<p>세계적인 대문호 · 셰익스피어 1.10 - 1.24</p> <p>1月</p> <p>겨울 이야기</p>

秋

해방과
구속



국립극단 명동 明洞

www.
ntck.
or.kr

1644
2003



2015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 합니다.

<p>김정호 〈3월의 눈〉 〈이영녀〉 〈토막〉</p>					<p>문경희 〈이영녀〉 〈토막〉 〈시련〉</p>
			<p>김정은 〈3월의 눈〉 〈이영녀〉 〈문제적 인간 연산〉</p>		<p>김정환 〈이영녀〉 〈문제적 인간 연산〉 〈토막〉</p>
<p>이종무 〈3월의 눈〉 〈문제적 인간 연산〉 〈겨울이야기〉</p>		<p>유정민 〈The Power〉 〈토막〉 〈시련〉</p>			<p>박지아 〈3월의 눈〉 〈토막〉 〈겨울이야기〉</p>
<p>이기돈 〈문제적 인간 연산〉 〈토막〉 〈시련〉</p>			<p>심완준 〈이영녀〉 〈토막〉 〈시련〉</p>	<p>김수연 〈3월의 눈〉 〈문제적 인간 연산〉 〈키 큰 세 여자〉</p>	
	<p>김신록 〈The Power〉 〈토막〉 〈겨울이야기〉</p>		<p>황선화 〈3월의 눈〉 〈이영녀〉 〈문제적 인간 연산〉</p>		<p>우정원 〈3월의 눈〉 〈이영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p>
	<p>백석광 〈3월의 눈〉 〈문제적 인간 연산〉 〈토막〉</p>		<p>안병찬 〈3월의 눈〉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겨울이야기〉</p>		
		<p>정현철 〈3월의 눈〉 〈The Power〉 〈겨울이야기〉</p>			

*괄호 안은 단원들의 2015 국립극단 출연작입니다

연극과의 특별한 만남

국립극단과 함께 하세요

2015 국립극단 유료회원 모집

국립극단은 관객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뒤편 연극하는 빨간 극장,
국립극단 유료회원이 되어주세요.

연극이 연애가 되고, 성찰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관객여러분들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국립극단의 목표입니다.
손님이 아닌, 가족을 맞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국립극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것입니다.

(재)국립극단 유료회원은 홈페이지와 국립극단 대표번호를 통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다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연회비 : 5만원
- * 회원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1. 국립극단 기념품 증정
2. 국립극단 제작공연 초대권 2매 증정 (연 1회/ 작성 등급이 있을 경우, S석 기준)
3. 자체제작공연 30% 할인
4. 국립극단 학술출판 도서 할인 (도서에 따라 할인을 상이)
5. 정기 뉴스레터 및 문자 서비스
6. 아카데미 프로그램 신청 시 참가 우선권 제공 (신청자 순)
7. 공연정보 및 할인정보 우선 제공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립극단 1644-2003



국립극단
SINCE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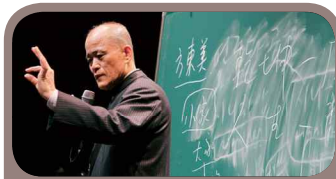
(재)국립극단 연극강좌

유익하고 흥미로운 연극과의 만남!

국립극단은 한국연극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관객들의 효과적인 연극 관람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합니다. 연극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연형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연극을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 하에 연극인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장과 연결된 대안적 공연예술 이론과 담론을 구축하며, 동시대 공연예술 제작 과정을 기록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객대상

예술가와의 대화, 아마추어배우교실, 백스테이지 투어 등 모든 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연극을 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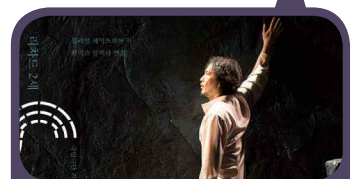


연극인대상

연극인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강의(월요일 오후 다섯시) 및 마스터클래스, 워크숍, 차세대 연극인 스튜디오가 운영됩니다.

출판사업

공연예술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현장과 연결된 예술이론 및 담론을 구축하고자 리허설북, 극작수업, 단행본과 같은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명동예술극장 및 백성희장민호극장 로비에서 출판물 구매가 가능합니다.



극작수업 VI 이운택

제가 처음 쓴 희극은, 구멍 어서라! 단막극이었다. 이 작품으로 1970년대 중반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등단해서 좌중실까지 갔는데 당분간 잊지 않겠습니다. 구멍은, 우리들의 인간성을 위한 중요한 무대장치로, 어디든 어느 날 거기에서 노래와 함께 스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행하고 그 때로 패환해 세계 되었는데, 그것이 제게서 몇몇 작 프로그램을 고안하면서는 희극으로 행한 것 같습니다.



국립극단 가을마당 청소년극



국립극단
SINCE 1950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비행소년

K W 4 8 3 9

2015. 11. 13 - 11. 29
국립극단 백성회장민호극장

STATUS
00 DELA
30 DELA
45 DELA
00 DELA
00 DELA
00 DELA
15 DELA
20 DELA
45 DELA

구성/미술/연출
이신동

화-금 20시
토-일 15시
월 공연없음

03:45 0
04:30
04:00 0

숨가쁜 비행의 외침
불안과 환희로 가득찬 선언

관람료
일반 3만원
청소년 2만원
소년소녀 1만원 평일(화수목금)별도의 특별공연 가능

국립극단 1644-2003 www.ntck.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주최/주관 (재)국립극단
제작 (재)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번역
김윤철

윤색
고영범

연출
박정희

출연

이순재 이호성 지현준 이문수
이현순 정재진 김효숙 최광일
채국희 정은경 문경희 김정호
강진휘 김정환 유정민 심완준
이기돈 정해선 정운선 노창균
박민지 정지영 안츠카 겐지은

미술 신선희

조명 김창기

의상 이윤정

분장 백지영

음악 장영규 김선

안무 금배섭

평일 19시 30분

주말, 공휴일 15시

화요일 심

R석 5만원

S석 3만 5천원

A석 2만원

주최/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윤철

국립극단

1644-2003

www.ntck.or.kr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예스24

1544-6399

ticket.yes24.com



국립극단
SINCE 1950

가을마당

시련 THE CRUCIBLE ARTHUR MILLER

2015.12.2 - 12.28 명동예술극장

NAVER
푸른티켓

살짝 넘어갔다가 얼어맞았다

김광보 연출
LG아트센터 제작 11.5-18

어느 날, 선이 하나 그어졌다

출연 **유연수 김영민 유병훈 이석준 유성주 한동규 이승주 임철수**

일시 2015년 11월 5일(목)~18일(수) 화-금 8pm, 주말 3pm & 7pm **주최 및 장소 LG아트센터 (지하철 2호선 역삼역 7번 출구)**

티켓 R 50,000 / S 40,000 / A 30,000 won * 청년할인 20% 할인 (1인 1매) **문의 및 예매 02-2005-0114 www.lgart.com**

외부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예스24 1544-6399 협찬 LG생활건강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티켓 1+1' 참가작

COM
PAS
LG Art Center Company
www.lgart.com
15

© 김보희 / Studio AL



요즘 볼만한 좋은 공연 소식들, 늘 궁금하시죠?

요즘 화제가 되는 공연
오픈을 앞두고 있는 기대작
볼만한 좋은 전시
읽을 만한 추천 책
작품과 무대의 뒷이야기와
음악, 인문학, 역사, 교양까지



이제 네이버를 열고, 책·문화를 찾아보세요.
트렌디하면서도 깊이 있는 책&문화 이야기를
매일매일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책·문화, 이렇게 만나세요!

- 1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 2 아래 책·문화를 클릭하세요**
- 3 우측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세요**
- 4 이제 책·문화가 보이시죠?**



네이버문화재단이 함께 합니다

04302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재)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04534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gil, Jung-gu, Seoul, Korea (04534)